

# ‘국보’ 여수 진남관 해체보수 10년만에 재개관

195억원 들여 건물 뒤틀림·지반 침식 등 구조적 안전 문제 해결  
기둥 일제 훼손 전 70개로 복원·편액 보수·기와 5만 4000장 사용

‘여수의 유일한 국보’ 진남관이 10년간의 새 단장 끝에 새 모습을 드러낸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 본영으로 사용한 진남관은 오랜 세월로 건물의 뒤틀림·지반 하부 침식 등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발생해 지난 2015년 12월 총사업비 195억원을 들여 해체 보수공사에 돌입했으며, 오는 30일 마침내 공식 개방된다.

지금까지 일제의 훼손·바닷가 습기·황폐미 등으로 인한 보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건물 전체를 해체 보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진남관을 해체해 나온 기둥 68개는 일제가 훼손하기 전 상태인 70개로 원형 복원하고 이중 10개를 교체했으며, 초석 70개와 목자재 6000여개는 최대한으로 사용했다.

또 대들보 역할을 하는 대량 16개 중 1개를 교체했으며, 지붕에는 전통 방식으로 구운 기와 5만 4000장을 사용해 기울어진 기둥과 휘어진 처마를 바로잡았다.

진남관의 이름표인 편액은 상당 부분이 손상돼

내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국가유산수리기술회원의 결정에 따라 복각한 편액을 현액하며, 기존 편액은 보존 처리를 한 뒤 올해 준공 예정인 여수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진남관 재개관을 시작으로 전라좌수영 동헌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전라좌수영 겸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옛 성터 거리 조성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역사적 정체성을 가진 여수의 대표적 역사문화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남관은 단층 팔작지붕 형태의 정면 15칸, 측면 5칸, 건평 780㎡의 건물로 현존하는 지방관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지난 1963년 1월에는 보물, 2001년 4월에는 국보로 승격 지정됐으며, 여수의 유일한 국보 유산이다.

임진왜란 발발 직전인 1591년 이순신 장군은 전라좌수영 절도사로 부임해 진해루라는 누각에 머물며 전쟁에 임했다. 진해루는 정유재란 때 왜구에 의해 불탔으나 1599년 삼도수군통제사 이



여수의 유일한 국보인 진남관이 10년간의 해체 보수공사를 마치고 오는 30일 개방된다.

시언이 진해루 터에 75칸 규모 객사 진남관을 건립했다.

이후 진남관은 1716년 전라좌수사 이여옥이 근

무한 당시 불이 나 소실됐지만 2년 뒤 전라좌수사 이제면이 중건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광양시 1년간 월 40만원씩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지원

광양시는 내달부터 전남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연령층 분석 결과,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약 3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데다,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특히 주택 마련 대출을 받는 비율이 높은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중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광양시 소재의 피해주택 및 신규 전세주택에 대한 대출이자를 최대 월 4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그동안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전남도내에서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미래 직업체험관 ‘순천만잡월드’ 새단장 마치고 개관

3일간 시범운영 후 31일 오픈

미래기술·예술창의 등 3테마 구성

순천시 어린이 직업체험관인 ‘순천만잡월드’가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는 31일 정식 개관한다.

지난 27일부터 3일간 시범 운영을 마친 순천만잡월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직업 체험의 장으로, 체험 콘텐츠와 시설을 전면 개선하고, 지역을 넘어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체험관은 총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AI센터, 로봇연구소, 드론개발센터 등 미래 유망 산업을 반영한 ‘미래기술 체험관’ ▲K-POP랜드, 뷰티숍, 애니클럽, 푸드스튜디오 등 창의성과 감성을 자극하는 ‘예술창의 체험관’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사회 안전 관련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공공안전체험관’이다.

체험 대상은 5세부터 10세 어린이이며, 아이들이 실제 직업 세계를 놓이처럼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로를 탐색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정식 개관에 앞서, 시는 체험 기회를 넓히고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3단계 특별 이벤트를 운영한다.

먼저, 27일부터 29일까지는 ‘잡월드 오픈런’ 시범 체험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단체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체험자 1인당 5000원의 특별 요금으로 운영된다. 시범 운영 기간은 방문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사전 운영 성격을 띤다.



오는 31일 새단장 마치고 오픈하는 순천만잡월드.

〈순천시 제공〉

정식 개관일인 31일에는 가족 단위 체험객을 위한 ‘잡월드 3GO’ 특별 이벤트가 열린다.

‘3GO’는 ‘즐기GO, 만들GO, 꿈꾸GO’라는 주제로 마술쇼, 별문쇼, 캐릭터 퍼레이드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더욱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관 이후에도 특별한 혜택이 이어진다.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3개월간 할인 요금제가 적용되어, 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부담 없이 다양

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순천만잡월드는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놓이름 통해 체험하며, 자신의 꿈과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향후 로봇교육과학관과 연계해 통해 직업 체험을 넘어 미래기술 체험의 거점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예약은 순천만잡월드 공식 누리집(<https://www.scjw.or.kr>)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061-749-3035으로 하면 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곡성세계장미축제 성료

10일간 관람객 25만명 기록

곡성의 대표적 글로벌 축제인 ‘세계장미축제’가 10일간 25만여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장미로 물드는 하루, 올데이로즈!’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는 야간 공연 대폭 확충 등 낮과 밤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느 해보다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또한 지역 예술단체와 주민이 함께한 개막퍼레이드와 지역의 45개 예술동아리가 참여한 ‘곡성풍류’를 통해 1000여명의 지역민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장미축제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다.

군은 지난해 한국관광9공사 공모에 당선되어 개발한 로지프렌즈 팝업스토어를 축제장 내 선보여 많은 관광객이 로지프렌즈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올해는 공연이 끝난 야간에 중앙광장 무대를 그대로 비워두지 않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로즈시네마를 운영했다. 장미와 어울리는 추억의 명화 ‘로마의 휴일’을 아외영화관 느낌으로 구현해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군 축제 담당자는 “올해 야간 프로그램이나 경관 등을 고려해 낸 로즈시네마 아이디어가 주효했다”며 “예상보다 훨씬 반응이 좋아 가슴 뿌듯했고, 앞으로도 장미축제에서 더 좋은 영화들을 찾아서 상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미축제가 끝난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은 현재 개화를 100%로 수확만 송이 장미가 싱싱한 자태를 뽐내고 있어 축제 후에도 방문객들에게 장미의 향과 자태를 뽐낼 것으로 보인다.

축제장을 찾은 한 관광객은 “한 번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 다음 주 아침 일찍 이슬 맺힌 장미를 보러 꼭 오겠다. 특히 올해는 정말 축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 고흥군 코로나 재확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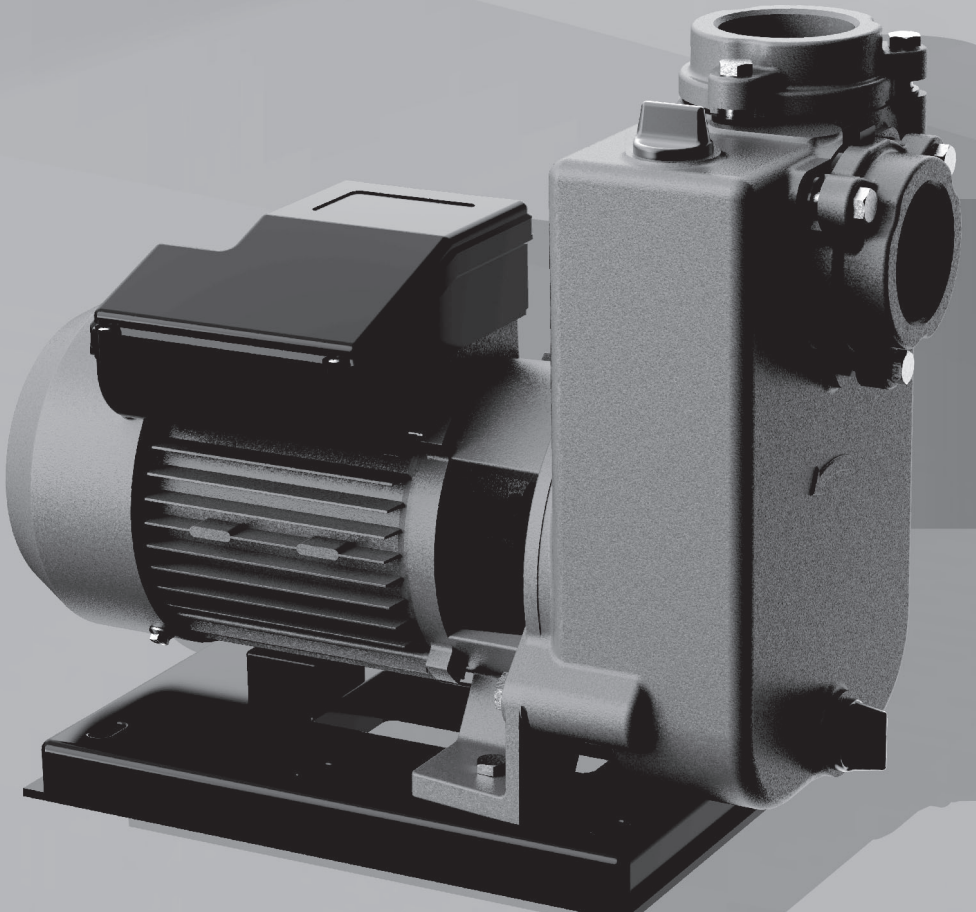
개인 위생·백신접종 당부

고흥군 보건소가 최근 중화권과 동남아 국가에서 재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보건소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및 확진자의 외출 자제,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예방 활동을 실천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2024~2025 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간을 기존 4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며, 접종을 완료한 경우라도 접종 간격이 90일 이상 지났다면 면역력 감소를 고려해 의료진과 상담 후 관내 위탁의료기관 21개소에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